

商周 鼎文化의 현대적 變容과 그 요인에 대한 고찰

— ‘巨鼎’ 분석을 중심으로

박석홍*

<目 次>

1. 緒言
2. 巨鼎: 전통 鼎의 현대적 變容
 - 1) 巨鼎의 명명
 - 2) 巨鼎의 제작 목적
 - 3) 巨鼎의 표의 방식
3. 巨鼎 출현의 내적 動因
 - 1) 鼎 선택의 이유
 - 2) 鼎 규모 과장의 이유
4. 結語

1. 緒言

중국 각지의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문화관광지, 인물 및 사건 기념관 등에서는 중국 고대의 정을 모방한 정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¹⁾ 이들 모형 정의 용도는 해당 정이 위치한 곳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서는 商代나 西周·春秋戰國 시기에 실존하였던 정을 매우 정교하게 재현한 것도 있다.²⁾ 이처럼 중국 고대의 전통 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陝西省 西安市 陝西歷史博物館, 山東省 泰安市 岱廟 등에 설치된 정이 그 예이다.

2) 대표적인 예가 河南省 安陽市 殷墟博物館 앞에 설치된 鼎이다. 이 정은 殷墟 婦好墓에서 발견된 「司母戊鼎」을 모방한 것이다. 「司母戊鼎」을 「后母戊鼎」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는 고대 한자 중에서 ‘司’와 ‘后’가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婦好나 婦辛의

국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화요소로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전통 정 또는 기존의 모형 정과 달리 규모 면에서 매우 과장된 정을 제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초대형 정을 ‘巨鼎’이라 칭할 수 있으며³⁾, 이것과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적 요소,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적 사고 및 행위양식 일체를 ‘巨鼎文化’라 정의할 수 있겠다. 거정문화는 전통 정을 주요 모티브로 한 전통 정 의 계승과 변용에 따라 출현한 현대 중국 문화 중 하나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 문화의 핵심 구성요소인 거정의 제작 목적을 먼저 살펴보고 거정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 중국인들이 각종 기물이나 조형물들 중에서 정을 선택하고, 또 이것을 초대형으로 제작한 이유에 대해 중국 언어학 및 문헌학·문화학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商周시대 정으로 대표되어지는 중국 고대 전통 鼎의 변용과 이에 따른 중국 고대 鼎 문화의 새로운 양상, 그리고 이것이 출현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巨鼎: 전통 鼎의 현대적 變容

鼎은 중국 석기시대의 陶鼎에서 유래하는 중국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조리기구이다. 또한 정은 음식의 조리나 보온과 같은 일상생활 중의 용도와 더불어 연회용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商代와 兩周시대에 이르러 정은 원래의 실용적 용도 외에도 사용 주체의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거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⁴⁾

지위와 궁중 내의 역할 등에 근거하자면, 해당 문자는 궁중의 제사를 관장하였던 왕궁의 고위 ‘女官’으로서의 ‘司’로 보는 설(曹定雲 1993:94)이 더욱 타당하다.

- 3)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초대형 정을 ‘巨鼎’이라 칭하였다. 이는 ‘巨’의 형태소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유산 중에서 ‘巨石’·‘巨人’과 같이 대형 조형물의 명명에서 일반적으로 ‘巨’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4) 전통 정 의 변용 사례는 중국 고대문화 전반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거루기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刑具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본고 제3장 제2절 참조). 이와 같이 정은 중국 문화 역사상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양상과 그 변화를 가

金文에서 ‘鼎’은 ‘鬻’·‘鬻’·‘鬻’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을 가지는데⁵⁾, 이는 고대 중국사회에서 정의 범용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전통 정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전통 정의 크기나 제작 목적, 상징 의미 등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전통 정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초대형 정을 제작하고, 또 이것을 주제로 대규모 테마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 <표1>과 같다.

명칭	높이(m)	무게(t)	제작연도	소재지
中華百福大鼎	10.099	56	2005	湖南 郴州
中華萬壽大鼎	9.9	56	2000	湖南 衡陽
天下第一香爐	9.9	88	2007	安徽 蕪湖
實事求是寶鼎	8	41.8	2003	四川 廣安
太公寶鼎	7.08	10.69	2009	山東 濰博
九龍寶鼎	6.68	16	2000	廣東 肇慶
炎黃寶鼎	6.6	20	2001	河南 鄭州
中華萬福大鼎	5.6	16	2009	陝西 安康
春秋大鼎	5.497	20.03	2003	山西 太原
民族團結寶鼎	5	3.5	2001	西藏 拉薩
萬福寶鼎	3.6	4.3	2006	廣東 大埔
香港回歸寶鼎	3.597	7	1997	홍콩
澳門回歸寶鼎	3.597	7	1999	마카오
世紀寶鼎	2.6	1.5	1995	미국 뉴욕

<표1> 주요 巨鼎의 규모 및 분포 현황⁶⁾

지고 있다.

5) 鼎은 시기별로 여러 명칭이 있다. 商周 금문에서는 ‘鬻’·‘鬻’, 춘추전국시대에는 ‘鬻’·‘鬻’·‘鬻’·‘鬻’·‘鬻’·‘鬻’ 등으로도 썼다. 또 외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른 명칭이 존재하였는데, 方鼎은 특히 ‘鬻’라 하고, 비교적 큰 列鼎은 ‘鬻’, 작은 鼎은 ‘鬻’으로 칭하였다. 이때의 ‘鬻’은 ‘鬻’로 쓰기도 하였으며, ‘鬻’ 또는 ‘鬻’은 연회용 鼎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馬承源1988:83~85).

6) 거정의 규모와 제작 연도 등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中華百福大鼎」(湖南省人民政府 門戶網站 www.hunan.gov.cn), 「中華萬壽大鼎」(『長沙晚報』2000년 9월 22일), 「天下第一香爐」(人民網 travel.people.com.cn), 「實事求是寶鼎」(人民網 cpc.people.com.cn), 「九龍寶鼎」(『中國青年報』2000년 12월 24일), 「炎黃寶鼎」(新華網 河南頻道 www.ha.xinhua.org), 「中華萬福大鼎」(華商網 news.hsw.cn), 「春秋大鼎」(人民網 www.people.com.cn), 「民族團結寶鼎」(人民網 www.people.com.cn), 「萬福寶鼎」(www.baik.com), 「香港回歸寶鼎」·

〈표1〉에서와 같이 이 정들은 크기 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그 어떤 정보보다 대형이다. 일부는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무게도 88t에 달하는 것도 있어서 이들을 '巨鼎'이라 칭해도 가히 무리가 없다. 특히 거정은 다음과 같이 외형적 규모만큼이나 전통 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다.

1) 巨鼎의 명명

전통 정은 발견 또는 발굴 후 주로 器主 또는 제작자의 명칭에 근거해 명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巨鼎은 제작 당시부터 각기 저마다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거정의 명칭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정들은 '香爐'라 칭해진 것을⁷⁾ 제외하고는 '大鼎'·'寶鼎'과 같이 피수식어 '鼎'이 수식어 '大'나 '寶'를 취하고 있다. '大'는 '鼎'의 외형상 규모를 표시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정으로써 추구되는 목적의 크고 원만한 성취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寶'는 해당 기물 본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물 제작의 동기가 된 공익적 메시지의 높은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⁸⁾

거정은 또한 기물명인 '鼎' 앞에 '百福'·'萬福'·'萬壽' 등과 같은 수식어를 취하고 있다. 이종의 '福'과 '壽'는 거정이 祝福 및 祝壽와 같은 祝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더불어 '福'·'壽' 앞에 '百'이나 '萬' 등의 숫자 관련 수식어를 취한 것은 '百'과 '萬'과 같은 최상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통해 축원의 간절함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거정의 명칭에서는 이밖에도 '鼎' 앞에 중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 혹은 인물과 관련한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정이 그러한 사건 혹은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香港回歸寶鼎」과 「澳門

「澳門回歸寶鼎」(河南博物院 www.chnmus.net), 「世紀寶鼎」(人民網 www.people.com.cn).

7) 「天下第一香爐」가 그 예이다. 이것의 명칭은 '香爐'이지만 方鼎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명칭을 통해서도 현재의 사당이나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향로는 商周 시대의 정에서 유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兩周 金文에서도 '誨作寶鼎'('誨鼎'), '用作(作)父戊寶尊彝'('同卣') 등과 같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回歸寶鼎」은 각각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太公寶鼎」과⁹⁾ 「炎黃寶鼎」은 太公과 炎·黃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것이다. 인물과 관련한 것 중에서는 해당 인물과 관련한 키워드 혹은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공적을 기념하는 것이 있는데 「實事求是寶鼎」이 그 예이다.

2) 巨鼎의 제작 목적

원래 실용 목적이었던 정은 商代에 이미 제사나 供犧를 위한 禮器로 轉用되었고, 西周시대에 이르러서는 分封·償賜 등의 동기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였다. 또한 商代뿐만 아니라 春秋·戰國 시기에 이르기까지 왕실 및 제후 등의 부장품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전통의 정은 특정 계급 및 계층의 계급사회·종법제도 관련 각종 활동을 위한 것으로, 당시 사회 속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대의 거정은 비록 전통 정과 제작 목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작 시점의 사회 속성과 분위기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정은 현대사회의 반영이며, 여기에는 현대중국 사회가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¹⁰⁾

앞서 거정의 명칭에서 '鼎' 앞에 수식어 '大'와 '寶'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이 '大'와 '寶'는 해당 정을 통해서 발양코자 한 가치의 지대한 중요성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의 의의나 인물 그 자체의 업적이나 철학·사상의 '大'하고 '寶'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과 인물을 통해 표방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 공익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거정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또한 거정은 앞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변경지역을 포함하는 중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조성되어 있다. 이는 거정의 제작을 통해 국내외에 널

9) 「太公寶鼎」의 제작과 조성 내력을 기록한 표지석에는 姜太公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가 생전에 추구했던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발전, 사회 통합, 지역 주민의 행복을 바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0) 거정의 제작목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현대 중국사회의 분석과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리 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정 제작의 주요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력 신장의 대내외적 과시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實事求是寶鼎」과 「世紀寶鼎」이다. 鄧小平에 의해 시작된 改革開放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 번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거정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라는 것은 개혁개방의 성과와 그에 따른 소위 '崛起'의¹¹⁾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實事求是寶鼎」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즉 이것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鄧小平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개혁개방의 의의를 중시하고 이것이 국가 발전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함께 기념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성과를 과시함과 동시에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달성코자 하는 포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世紀寶鼎」은 UN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 기증하여 설치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국가발전에 따른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신장되었음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거정은 곧 중국이 국·내외 여러 분야에 걸쳐 崛起를 실현하고 또 미래의 지속적인 실현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둘째, 민생 중시 의지의 천명이다.

西周 청동기 정이 원래 제왕·왕실·국가 혹은 器主 및 그 자손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던 것처럼¹²⁾ 당시 축원의 대상은 왕족 및 귀족 등 특정 계급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거정은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萬福鼎」과 「中華萬壽大鼎」이 바로 그 예이다. 「萬福鼎」의 표면에는 1만 개의 '福'자가 있다. 이 '1만 개의 福'은

11) '大國'으로서의 '崛起'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政治崛起'·'經濟崛起'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文化崛起'·'旅游崛起'라는 신조어가 출현하였는데, '屈起'는 중국이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12) 銘文 중의 '用祈眉壽萬年無疆, 子子孫孫永寶用' 등과 같은 문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萬’民의 ‘행복’을 상징한다. 또한 「中華萬壽大鼎」은 1만 개의 ‘壽’를 주조해 넣었는데, 이는 만민의 長壽를 축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국가 구성원 전체의 통합 독려이다.

「九龍寶鼎」이 가장 단적인 예이다. 이것은 器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아홉 마리의 용을 주제로 하여 표면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부조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용은 ‘華夏民族’의 대표적 상징이며, 구룡은 ‘九州’로 별칭되는 중국의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홉 마리의 용이다. 용들을 정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두 구현한 것은 먼 옛날 夏禹가 九州로부터 구리(‘金’)를 거두어 ‘九鼎’을 짓고 이상적 통일 국가를 염원하였던 고사에서¹³⁾ 착안한 것이다. 현대 중국 역시 九州의 만백성처럼 중국이라는 하나의 영토에 살아가면서 함께 협력하고 통합되기를 바라는 염원이다. 또한 「炎黃寶鼎」은 중국인 모두가 민족의 구분 없이 炎·皇의 자손으로서 같은 華夏民族임을 강조함으로써 전 중국인의 단합을 독려하고 있다.

넷째, 거정은 민족 문제 중시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민족문제는 국가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존립 여부와도 직결될 만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 중국은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정 중에도 이러한 태도와 노력을 반영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中華萬壽大鼎」에는 기물 본체 사면에 滿洲族·蒙古族·藏族·위구르족 등 각 민족들이 서로 다른 서체로 쓴 ‘壽’자가 주조되어 있다. 이는 곧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과 더불어, 민족 간 대단합을 통해 전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거정에서는 분리주의 배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民族團結寶鼎」이다. 이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西藏自治區를 시작으로 新疆維吾爾自治區·內蒙古自治區·寧夏回族自治區에 동일 이름의 정을 순차적으로 기증한 것이다.¹⁴⁾ 이는 일종의 九鼎에 대한 기억의 재연임과 동시에 중

13) 『史記·孝武本紀』: “黃帝作寶鼎三, 象天地人, 禹收九牧之金, 鑄九鼎, 皆嘗鬻烹上帝鬼神.” 또 『漢書·郊祀志上』: “禹收九牧之金, 鑄九鼎, 象九州.”

14) 2001년 7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의 길을 연 ‘17개조 협의’ 체

양 권력의 제한적 지역 분권 및 지역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民族團結寶鼎」은 중앙 정부의 지방 자치정부에 대한 공고한 통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해당 자치구가 엄연한 중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을 기념하여 조성한 「香港回歸寶鼎」과 「澳門回歸寶鼎」 역시 이와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거정은 전통문화 중시 의식의 발현을 위해서이다.

거정은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새로이 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조성되었다. 앞서 기술한 여러 상징적 의미에 대한 표시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조형물이나 마천루와 같은 거대 건축물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을 제작하고 각종 방식들을 운용하여¹⁵⁾ 국가 및 사회의 염원을 표시한 것은 중국의 대표적 역사 및 문화 유물 중 하나인 정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과 계승의 의지도 함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정들 중 상당수는 실제 존재하였던 정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정의 전통적 형제를 재해석하여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春秋大鼎」은 「附耳牛頭螭紋蹄足銅鑊鼎」을¹⁶⁾, 그리고 「太公寶鼎」은西周 「大克鼎」을 재현한 것이며, 「九龍寶鼎」은 청동기 연구의 권위자인 馬承源의 디자인에 의해 제작되었다. 비록 이들 정이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사실성과 예술성 모두 매우 높다.¹⁷⁾ 거정은 정이라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주요 테마로 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선조들의 정신과 창조성을 본받아 미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염원 역시 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거정은 다른 현대 조형물이 가질 수 없는 역사적 요소들을 활용해 전통의

결로부터 50년이 된 해를 기념하면서 西藏自治區에 「民族團結寶鼎」을 설치하였다. 또한 新疆維吾爾自治區에는 2005년 9월에 新疆위구르 자치구 수립 50주년, 內蒙古自治區는 2007년 8월에 자치구 수립 60주년, 寧夏回族自治區에는 2008년 9월에 자치구 수립 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民族團結寶鼎」을 각각 설치하였다.

15) 거정들은 銘文뿐만 아니라 문자 역시 전통 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中華萬壽大鼎」은 毛澤東의 초서가, 「世紀寶鼎」에서는 金文으로 적힌 銘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거정은 전통적인 명문 형식을 갖추거나 고대한자의 다양한 서체를 구현함으로써 문자에 내포되어 있는 전통적 요소들과 함께 거정의 전통 중시의 제작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16) 이 정은 1988에 太原市 근교에서 출토된 것으로 春秋시기 정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17) 「九龍寶鼎」은 기물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동일한 모양의 축소본이 中國歷史博物館에 보존되기도 하였다.

기반 위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가 더욱 풍요롭고 건설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겠다.

3) 巨鼎의 표의 방식

거정은 기물 표면에 구현된 문자와 문양, 그리고 일정한 상징법을 통해 거정 제작의 목적을 명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 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기존 紋樣과 銘文을 대체한 전통 정 의 현대적 변용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의 변용이다.

전통 정은 기물 표면이나 다리 등에 雲雷紋·渦形紋·波形文 등의 기하학적 문양을 구현하여 정 의 예술성을 제고하거나, 혹은 饕餮紋·龍紋·鳳紋 등 동물형 문양 등을 통해 關邪나 주술 및 토템 숭배 등 종교적 의미를 표시하였다.¹⁸⁾ 또한 문양의 구현 목적 측면에서 거정에는 전통 정과는 다른 양상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萬福鼎」은 기물 표면에 문양 대신에 기물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헌자가 강조되었다. 즉 「萬福鼎」에는 1만 개의 '福'자를 주조하고, 모든 글자 아래에 정 제작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착해놓았다. 이는 전통 정이 심미적 측면 혹은 종교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과는 사뭇 다른데, 사회 공익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성명이 새겨진 동판이 전통 정 의 문양을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문자의 변용이다.

전통 정은 주로 기물 안쪽에 비교적 보수적인 서체로 정 의 제작 동기나 목적과 관련한 銘文이 주조되어 있다. 거정 역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통 정 의 銘文의 위치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다. 거정에는 기물 표면에 문자가 구현되었는데,

18) 『論衡·儒增』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夏之方盛也, 遠方圖物, 貢金九牧, 鑄鼎象物, 而爲之備, 故入山澤, 不逢惡物, 用辟神姦, 故能叶于上下, 以承天休.”(하가 흥성할 때 먼 지역에서 그곳의 산물이나 그림을 바치게 하고 구주의 우두머리에게 구리를 바치라 명해 그것으로 정을 주조하고 거기에 도상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산과 못에 들어갈 때에도 흉악한 것과 마주치지도 않고 괴이하고 간사한 요물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로써 하늘과 백성이 화합하여 하늘의 보우를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통 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장문의 명문보다는 소수의 單字가 조조되어 있거나, 혹은 수많은 동일 단자의 이체자들이 주조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中華百福大鼎」은 기물 표면에 900개의 '福'자가 주조되어 있고, 「中華萬壽大鼎」의 사면 및 아랫부분에는 1만 개의 '壽'자가 주조되어 있다. 또한 「萬福鼎」의 기물 표면에는 1만 개의 '福'자를 주조해놓았고, 「中華萬壽大鼎」은 1만 개의 '壽'을 주조해 넣었다. 여기에서의 숫자 '1만'은 '만백성', 즉 '전체 국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 역시 전술의 특정 표의 방식을 통해 만민의 행복과 長壽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다.¹⁹⁾

셋째, 숫자 상징의 활용이다.

거정에는 전통 정에서는 운용하지 않았던 숫자를 통한 내적 함의 표시의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를 들어 「九龍寶鼎」에서의²⁰⁾ '九'는 앞서 기술한 '九州'와 관련성이 있다. 이때의 '九'는 '완성' 또는 '최고'의 숫자로서 완전한 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萬福鼎」은 직경이 4.8m인데 이 수치는 '四'面'八'方을 상징한다. 「萬福鼎」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萬'민의 '행복'을 상징하는 1만 개의 '福'자가 있으므로, 이 「萬福鼎」은 사면팔방, 즉 중국 전역의 모든 국민들이 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中華百福大鼎」은 높이가 10.099m인데, 이 수치 중 '99'는 '十八福'을 나타낸 것이다. 「九龍寶鼎」은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홉 마리의 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제로 아홉 마리의 용이 부조되어 있다. 「民族團結寶鼎」은 上座에 56마리의 夔龍이 주조되어 있다. 이 '아홉'과 '56'은 각각 '중국의 영토'와 '56개 민족'을 의미한다. 무게가 56t인 「中華百福大鼎」과 「中華萬壽大鼎」, 높이가 5.6m인 「萬福鼎」과 「金石萬福大鼎」 모두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물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다.

넷째, 숫자 諧音의 운용이다.²¹⁾

19) 「天下第一香爐」의 표면에 999개의 '福'자를 鑲嵌해놓은 것도 이와 같은 예이다.

20) 국민 통합의 이상은 고대의 大禹의 '九鼎' 전설에서도 잘 드러나 있으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추구하였던 국가 이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이는 현대 중국도 예외는 아닌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국가의 안정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 전체의 단합이 필수 전제사항이기 때문이다. 거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21)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운용하는 음성 부호는 제한적이다. 특히 초기 언어

거정에서는 숫자 해음을 활용하여 정외의 제작 의도 및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의 방식은 전통 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中華百福大鼎」과 「中華百福大鼎」은 모두 구경이 6.6m, 「太公寶鼎」은 구경이 6.06m이며, 「炎黃寶鼎」은 높이가 6.6m이다. 이는 ‘홀륭하다’·‘순조롭다’의 의미인 ‘溜’의 해음 표현을 포함하는 ‘六六大順’을 상징함으로써 전 국민의 만사형통을 기원하고 있다.²²⁾ 그리고 「中華百福大鼎」은 높이가 10.099m이고, 「中華萬壽大鼎」은 높이가 9.9m이다. 이 수치 중의 ‘99’는 ‘十八福’과 더불어 ‘久久’, 즉 지향하는 가치의 영원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九九歸一’의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中華百福大鼎」과 「中華萬壽大鼎」은 모두 높이와 관련한 치수를 이용하여 ‘모든 성원이 하나의 중국에 귀속되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거정 외에도 숫자 ‘九’와 관련되는 거정들은 모두 ‘久’의 해음으로서 ‘오랫동안’의 의미도 함께 상징한다. 이처럼 거정은 萬民壽福을 상징하는 숫자를 통해 국가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장수, 만사형통 등의 염원을 표시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3. 巨鼎 출현의 내적 動因

사회 공익적 메시지의 전달은 다른 전통 기물 또는 새로운 현대적 상징물으로써도 가능하다. 또한 기물 크기의 과장 외에도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다른 표현 기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과 관련한 전통적 사회 의례나 관습이 사라진 현대에 정을 선택하고,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형의 규모로 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장에서는 ‘정’을 선택하고 ‘크게’ 만든 이유에 대해 분석해

형식에서는 단음절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동음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이 극복된 시기에도 서로 다른 단어 또는 형태소의 동음 현상은 빈번하였다. 이들 동음어들은 상호 음운적 동일성이 있다 해도 이들 간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대인들은 동음어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숫자의 경우에는 특정 숫자와 유사한 발음의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관 지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해음 중의 숫자 해음이다(曲彥斌 1996:185).

22) 이는 중국이 추구하였던 ‘小康事會’의 본질적 정신과도 잘 부합한다.

봄으로써 현대중국의 거정문화 형성의 내적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 鼎 선택의 이유

거정의 명칭에 내포된 제작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거정은 중국인들의 개인적 축원과 지역사회 및 국가적 염원 등과 관련이 있다. 앞장에서도 정이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크게 발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고금을 통 털어 이와 같은 축원이나 염원을 빌 수 있는 기물 또는 조형물은 매우 다양함에도 정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정이 전통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임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이 내포하고 있는 '정통성'·'안정'·'최고'·'영원성' 등과 같은 정의 본연의 내적 함의 때문이다. 고대 중국인의 문화적·역사적 경험과 언어습관 등에 의해 생성된 이러한 정의 함의들은 사회적 지향을 나타내기 위해 정이 선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정의 이러한 함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통성

정은 고대부터 국가와 왕실뿐만 아니라 제후들에게 있어서도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물이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정은 옥새와도 같은 寶器로서 종묘사직과 함께 하면서 국가 및 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至上的 사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기존의 통치자의 정을 탐하거나²³⁾, 망국의 정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²⁴⁾, 또는 다른 나라의 정벌을

23) 『戰國策·東周策』: “秦興師臨周而求九鼎, 周君患之, 以告顏率.”(진이 군사를 일으켜 주를 위협하고 九鼎을 취하려 하자 주의 군주는 이를 걱정하여 안술에게 말했다.)

24) 『史記·秦始皇本紀』: “始皇還, 過彭城, 齋戒禱祠, 欲出周鼎泗水, 使千人沒水求之, 弗得.”(진 시황이 귀환하면서 팽성을 지날 때, 재계하고 사당에 기도를 올린 후 사수에 빠진 周의 鼎을 꺼내고자 천여 명으로 하여금 물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으려 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또 『史記·周本紀』: “定王元年, 楚莊王伐陸渾之戎, 次洛, 使人問九鼎.”(정왕 원년에 초 장왕이 육혼의 오랑개를 정벌하고 낙읍에 머물며 사람으로 하여금 구정에 관해 물었다.) 또 『史記·秦本紀』: “楚莊王彊, 北兵至雒, 問周鼎.”(초 장왕이 강대해지자 북쪽으로 군사들을 보내 낙읍에까지 이르러 주의 구정에 관해 물었다.)

정을 취하는 것으로 비유하거나²⁵⁾, 왕권과 정권의 몰락을 정의 옮겨짐으로 비유한 것²⁶⁾ 등이 고대 중국에서의 정의 왕실·정권·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의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인식은 문헌 속 인물들이 생존하였던 당시뿐만 아니라, 이 문헌 내용을 접한 고금의 중국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고대 鼎 문화와 관련한 중요한 문화기억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현대중국에서의 거정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정 제작의 주체와 거정에서 표방하는 사회 공익적 가치의 수혜자들 모두가 商周 시대로 대변되는 고대 정통 왕조로부터 비롯된 중국 정통 역사와 문화의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며, 이러한 정통성의 공유를 통해 동일한 정통성을 가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단합의 의미도 함께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2) 안정





정은 ‘안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의미는 정의 외형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鼎은 아가리와 본체의 형태에 따라 크게 方鼎과 圓鼎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네 개의 다리, 후자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구조이다.²⁷⁾ 정은 원래 조리기구로서 다리의 갯수와 배치 구조는 초기의 陶鼎에서부터 열효율을 높이고 가열의 편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고온의 음식물을 담는 본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정의 구조는 이것을 사용한 고대인들의 오랜 경험론적 모색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체와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 기본 구조는 제례나 의례에 사용된 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계승되었다. 다

25) 『史記·孝文本紀』: “趙人新垣平以望氣見, 因說上設立渭陽五廟. 欲出周鼎, 當有玉英見.”(조나라 사람인 신원평이 기세를 살피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군주를 알현하고 위양에 오제묘를 세우면 周의 鼎을 얻고, 마땅히 보옥도 얻게 될 것이라 아뢰었다.)

26) 『史記·秦本紀』: “西周君走來自歸, 頓首受罪, 盡獻其邑三十六城, 口三萬. 秦王受獻, 歸其君於周. 五十二年, 周民東亡, 其器九鼎入秦. 周初亡.”(서주의 군주가 스스로 돌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달게 받고 서른여섯 성읍과 삼만의 백성을 모두 바쳤다. 진왕은 헌상을 받아 들이고 서주 군주를 주로 돌려보냈다. 52년, 주의 백성들이 동쪽으로 도망치자 주의 구정을 진으로 들여왔으니, 주는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27) 본고 중 정의 각 부위별 명칭은 의미 전달의 명확성과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아가리’·‘본체’·‘다리’·‘귀’ 등을 취하였지만, 각 부위에 해당하는 정식 명칭은 각각 ‘口’·‘腹’·‘足’·‘耳’ 등이다.

만 방정은 상대 후기부터 서주 초기까지만 유행하다가(張長壽 等1999:11)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三足の 원정이 정의 주요 형식이 되었고,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정은 삼족의 기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삼족의 정은 갑골문과 금문 ‘鼎’을 통해서도 그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갑골문 ‘鼎’		금문 ‘鼎’	
			
(乙1971)	(掇2·8)	(父己尊)	(孟鼎)

〈표2〉 ‘鼎’의 갑골문과 금문 자형

앞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鼎’의 갑골문과 금문 자형 대부분은 정의 두 귀를 형상화한 形體素와²⁸⁾ 아래로 붙룩한 정의 본체를 형상화한 형체소, 그리고 이것의 아래에 부착된 다리를 형상화한 형체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본체와 관련한 형체소를 살펴보면, 이들 문자들이 형상화한 정은 삼족의 원정임을 알 수 있다. 정의 본체와 관련한 갑골문 ‘鼎’의 형체소 중 정의 본체 밑 부분에 해당하는 필획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갑골의 재질적 특성상 書寫經濟에²⁹⁾ 부합하지 않는 이와 같은 곡선의 필획은 기물 본체의 아랫부분이 둥근 형태인 원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의식적 서사의 결과이다. 원정은 모두 삼족을 취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점은 형태적 보수성을 가지는 금문 ‘鼎’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說文解字』(이하 『說文』)에서도 정을 삼족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³⁰⁾ 이는 상대부터 서주에 이르는 시기, 그리고 그 후대의 중국인들은 이미 정의 전형적인 형식이 삼족의 원정으로 인식하였음을

28) 형체소란 의미자질의 외재적 표시 형식으로서, 의미자질을 서사경계의 근간으로 삼는 상형자 형태 구성 및 표의상의 기본 단위를 의미한다(박석홍 2015a).

29) 서사경제(writing economy)란 음성언어 상의 언어경제(linguistic economy)와 마찬가지로 음성언어의 서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서사 상 노력의 경제를 의미한다(박석홍 2009).

30) 『說文·鼎部』: “鼎(鼎), 三足兩耳, 和五味之寶器也。昔禹收九牧之金, 鑄鼎荊山之下, 入山林川澤, 螭魅罔兩, 莫能逢之, 以協承天休。『易』卦: 巽木於下者爲鼎, 象析木以炊也。籀文以鼎爲貞字。凡鼎之屬皆從鼎。”(都挺切)

알게 해준다.

전술과 같은 원정 중 세 개의 다리는 정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것은 ‘三’이라는 숫자가 ‘안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고대 중국인의 오래된 심리와 자연스럽게 부합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정은 ‘안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 정은 다리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안정’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鼎立’이란 단어가 [+안정]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최고

鼎은 ‘최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은 ‘최고’·‘정점’ 등의 의미를 가지는 중국어 형태소 또는 단어로서의 ‘頂’이 ‘鼎’과 문자 및 음운³¹⁾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鼎’을 형태소로 취한 다른 단어들에 대한 의미자질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자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頂’은 『설문』에서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을 나타내는 ‘정수리’로³²⁾ 풀이하고 있다.³³⁾ ‘頂’은 ‘鼎’을 발음요소(즉 ‘聲符’)로 취한 籀文 ‘顛’과 이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顛’의 성부 ‘鼎’을 단순히 ‘頂’의 원래 성부 ‘丁’을 대체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필획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서사 역시 용이하지 않은 ‘鼎’을 성부로 취한 것은 서사상 노력의 경계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서사 심리에 위배된다.

고대 한자의 이체자에서는 서사상 경제성의 추구라는 일반적인 서사심리와는 반대로 복잡한 필획의 편방을 취하는 현상이 빈번하지만, ‘頂’의 원래 성부인 ‘丁’ 대신 이보다 훨씬 복잡한 필획의 ‘鼎’을 취한 것은 모종의 의식적인 造字 의도에서

31) 정은 이것을 형상화한 ‘鼎’의 고문자와 이것의 다양한 이체 및 이형체들의 생성과 이를 의미 요소로 취하는 문자의 造字뿐만 아니라 이를 형태소로 취한 단어의 생성 및 조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32) ‘정수리(頂一)’는 원래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로서 ‘腦天’·‘函門’·‘頂門’·‘頂心’이라고도 하며 ‘꼭대기’란 단어의 유의어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비유하여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가리키기도 한다(국립국어원 2016).

33) 『說文·頁部』: “頂(頂), 顛也. 從頁, 丁聲. 頂, 或從巛作. 顛, 籀文從鼎.”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鼎’을 성부로 취하는 과정 중에 ‘頂’의 의미에 착안하여 이것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鼎’을 취함으로써 ‘頂’의 의미를 한 층 더 강화한 것이다. 즉 ‘顛’은 성부 ‘鼎’을 취함으로써 이 글자의 소리뿐만 아니라, ‘鼎’이 가진 [최고]·[권위] 등의 의미자질의 부가를 통해 ‘최고’·‘정점’이라는 ‘頂’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³⁴⁾

‘鼎’과 ‘頂’의 관련성은 음운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頂’과 ‘鼎’의 中古音은 모두 端紐·迥韻·上聲의 都挺切로서 /*dieŋ/으로 再構할 수 있다. 上古音은 모두 段紐·耕韻으로서 /*tieg/으로 재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음운상 일치는 ‘鼎’이 ‘頂’의 이체자 ‘顛’의 성부로서 뿐만 아니라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미요소(義符)의 기능을 겸한다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³⁵⁾

鼎이 ‘최고’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어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鼎’은 중국어에서 다양한 의미의 형태소로 운용된다.³⁶⁾ 『漢語大詞典』에 수록되어 있는 ‘鼎’을 형태소로 취한 57개의 단어를 모두 분석해보면, ‘鼎’의 형태소 의미는 ‘술과 셋’³⁷⁾ 외에도 다음 <표3>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서 해당 단어들의 조어에 간여하고 있다.³⁸⁾

34) 따라서 ‘顛’은 표음과 표의기능을 동시에 가진 ‘鼎’을 편방으로 취한 形聲兼會意字로 보아야 한다.

35) 諧音은 전술의 숫자 해음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원래 동음어 관계의 음절 혹은 단어의 호응을 통한 특정 의미를 표시하는 특수한 언어 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거정은 ‘鼎’이라는 사물 자체가 해음 효과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해음을 ‘事物諧音’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물해음은 동음의 음절(혹은 단어)이 음운상 직접적 연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실제적 사물이 특정 의미의 상징을 위해 직접 사용되어 이것의 명칭을 나타내는 음절과 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동음의 음절 간의 음운적 일치성 혹은 유사성에 의한 특수한 해음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거정은 제작 주체가 사물해음을 이용하여 ‘최고’라는 상징적 의미가 거정에 내재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6)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어나 일본어 어휘에 비해 중국어 어휘 중 ‘鼎’을 형태소로 취한 단어가 훨씬 많고, 또 형태소로서의 ‘鼎’이 <표3>과 같이 다양한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문화에 있어 鼎이 가지는 문화요소로서의 지위와 비중이 주변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37) 형태소로서의 ‘鼎’이 ‘셋’ 또는 ‘세 개의 사물’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는 ‘鼎元’·‘鼎立’·‘鼎足三分’·‘鼎爭’·‘鼎峙’ 등이 있다.

38) 형태소 ‘鼎’을 포함하는 단어들 중 ‘술’이라는 형태소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의미자질 [禮器]를 가지는 ‘鼎玉’·‘鼎耳’·‘鼎俎’·‘鼎錫’·‘鼎實’·‘鼎鐘’, [조리기구]를 포함하는 ‘鼎肉’·‘鼎折覆餗’·‘鼎食鳴鐘’·‘鼎釜’·‘鼎魚’·‘鼎游’, 그리고 [刑具]를 포함하는 ‘鼎烹’·‘鼎鑕’·‘鼎

형태소 의미		단어 예
a. 국가		鼎味 鼎賊 鼎重 鼎祚 鼎氣 鼎運 鼎圖 問鼎
b. 제왕		鼎命 鼎湖 鼎綸
c. 고위관직	三公	鼎台
	宰相	鼎位 鼎府 鼎席 鼎軸 鼎輔 鼎鉉 鼎鼐
	重臣	鼎司 鼎臣 鼎國 鼎飪
d. 크다		鼎力 鼎士 鼎助 鼎庇 鼎薦 鼎言
e. 매우, 극성의		鼎科 鼎賜 鼎昌 鼎盛
f. 지금 한창		鼎富 鼎來 鼎貴 鼎鼎

〈표3〉 ‘鼎’의 의미 유형과 해당 예

위 〈표3〉 중의 형태소 ‘鼎’은 의미상 대체적으로 공통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권위] 등의 의미자질들이 바로 그것이다. ‘鼎’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다른 기물보다 컸던 鼎의 외형적 크기 외에도, 정이 예기 또는 제기 중의 으뜸이며, 이 기물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최고의 통치자나 소수의 귀족에 국한되었다는 고대인의 의식적 경험에 의해 생성된 鼎에 대한 권위와 경외에 관한 사유에 의한 것이다.³⁹⁾

(4) 영원성

「中華萬壽大鼎」을 비롯한 거정들 대부분은 전통의 정 제작 방식과 유사하게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청동이라는 금속은 고대에 각종 기물 제작에 사용되었던 여타의 각종 재료와는 달리 耐蝕性이 강해 오래 보존되는 재질적 특성이 있다.⁴⁰⁾ 따라서 정을 선택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재질적 특성과

鑊(刀鋸)’ 등 크게 세 유형이 있다.

39) 앞 〈표3〉에서와 같이 정은 최고 통치자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많다. 고대 사회에서의 최고 통치자는 곧 국가이므로, 정은 곧 국가인 것이다. 이로써 정 자체가 실제로 종묘사직 그 자체, 국가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40) 청동의 가장 두드러진 재질적 특징은 잘 부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에도 염분에 취약할 수 있는 선박의 프로펠러 관련 부품을 동합금으로 제작하고, 또한 이보다 더 내식성이나 기계적 강도가 요구될 때에도 청동이 함유된 망간청동제나 알루미늄청동제

관련한 '오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동의 녹(즉 '銅銹') 역시 '오래'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 오래된 청동기의 銅銹는 네 개의 층을 가지는데, 청동 기물 표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는 흑색·棗紅색·녹색의 동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바깥 표면은 흙과 녹이 뒤섞인 딱딱한 껍질 같은 층을 형성한다(張懋容·曹璋 2002:50). 이 중 마지막 표층인 녹색의 동수는 더 이상 색이 변하지 않고, 또한 긁어내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전술과 같이 청동의 재질적 특성과 동수의 속성은 바로 청동이 '영원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한다. 공익적 가치 표시를 위한 기물의 선택에 있어 정이 선택된 것도 바로 정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으로 제작된 거정은 바로 앞서 살펴본 '안정'·'최고' 등의 개념의 영원성과 더불어 거정 조성 목적의 영원성 역시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기물의 재질적 특성을 활용한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의 예는 청동 이외에도 돌로 조성된 대형 조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일부 巨石 역시 '돌'이라는 재질의 영원성을 통해 돌로써 구현된 존재가 해당 사회집단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자신들을 보우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⁴¹⁾ 예를 들어 태양숭배와 관련이 있는 돌멘(Dolmen)·멘히르(Menhir)·크롬레크(Cromlech, stone circle)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태양의 施惠가 영속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작물 재배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즉 이것은 돌 자체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이것으로 숭배되어지는 존재의 영원성, 또 숭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의 영원성에 대한 강렬한 바람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동 정이 재질적 특성에 따른 '영원성'이라는 내적함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를 자주 사용한다.

41) 이들 사회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돌이 가장 강한 재질의 사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鼎 규모 과장의 이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거대 佛像, 古蜀문화의 三星堆 人面像⁴²⁾, 칠레 이스터섬의 巨石像⁴³⁾ 등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는 실물 크기를 과장한 거대 조형물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거대 조형물은 인류의 心的 同一性(psychic unity of mankind)⁴⁴⁾ 바탕을 두고 전 인류에 걸쳐 행하여진 문화적 산물이며, 존재적 가치의 경중과 대소에 비례하며, 해당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크고 위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크기만큼의 커다란 保佑⁴⁵⁾ 염원하는 심리 작용의 결과이다. 이들은 해당 문화권의 중요한 문화 유물로서 이들 지역의 문화를 구성하는 개별 문화요소들의 집체적 구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의 재질이 만약 돌이라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존재에 대한 숭배나 경외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돌처럼 영원히 해당 사회성원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보우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지의 거인설화·거석숭배·거탑·오벨리스크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의 피라미드, 고구려 왕릉 등과 같은 거대 조형물들은 형상화의 原

42) 이것은 古蜀族의 始祖로 알려진 蠶叢의 형상이라는 설(徐學書 1989:52, 巴家雲 1991:54)이 일반적이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초기 고족문화 시기에 있어 사회·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시 고족국 사람들로부터 聖人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임은 분명해 보인다(박석홍 2007).

43) 일명 '모아이(Moai) 석상'으로서 폴리네시아 계열의 이스터(Easter) 섬 원주민들의 선조로서 왕이나 고관과 같이 원주민들의 추앙을 받던 존재들을 모델로 하였다(이종호 2003:78). 이와 같은 巨石崇拜(stone-worship)는 돌 자체의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거나, 돌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돌의 본래 속성에 의해 형성된 고대인들의 종교의 한 유형이다(종교사전편찬위원회, 1998). 즉 돌은 풍화와 같은 오랜 시간의 자연 현상에 의한 것 외에는 그것의 견고함, 그리고 이에 바탕한 영원성이 고대인들이 돌을 그렇게 인식케 한 것이다. 또한 그것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을 巨石을 통해 표현하였다.

44) 인류의 심적 동일성이란 인류의 보편적으로 유사한 기본적인 사고들을 의미한다. 문화인류학자 아돌프 바스티안(Adolf Bastian)이 주장한 것으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심적·정신적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유사한 자극에 대하여 유사한 반응을 결과한다는 것이다(Gabarino 1994:48). 원어로는 'Elementargedanken'이다.

45) 거인설화는 초인적인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사람들을 크게 보우하길 바라는 고대인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대상이 가진 '가치'를 강조하거나 확대 표방하기 위한 것으로, 거정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앞의 거대 조형물들 자체가 제작 주체의 직접적 숭배대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거정은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통한 상징적 의미 표시의 성질이 훨씬 강하다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거정 제작의 심층적 원인은 전술과 같이 인류의 심적 동일성에 따른 인류 문화의 보편성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외에도, 중국 商周 시대에 존재하였던 전통 정에 대한 文化記憶(Cultural Memory)에⁴⁶⁾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 출토된 실물의 정이 다른 기물들에 비해 크다는 점, 각종 先秦 문헌 중에서 정이 상대적으로 대형 기물이라는 점은 중국의 고대인들로 하여금 정이 대형의 기물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정이 실제로 고대에는 실용기물이나 禮器 중 가장 대형의 기물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거정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정은 실용 기물뿐만 아니라 예기 중에서도 가장 큰 기물 중 하나이다. 정은 원래 조리기구로서 흙으로 만든 것이 원형이지만, 供犧나 祭禮에 사용되면서부터 재질과 크기에 있어 변화가 일어났다. 즉 숭배의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클수록 이들에게 獻上할 祭物의 양이나 犧牲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이를 담아 진설할 정 of 크기가 자연히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희 또는 제사 관련 활동을 기록한 商代 卜辭, 또 鬲(升鼎)과⁴⁷⁾ 같이 일상생활용 정과 다른 특징의 명칭을 가지는⁴⁸⁾ 희생 진설용 정 of 존재, 그리고 牛鼎·羊鼎·豕鼎·鹿鼎 등과 같이 희생의 종류에 따른 정 of 다양한 명칭의 존재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정 중 가장 최대의 것인 「司母戊鼎」을⁴⁹⁾ 비롯하여 「牛鼎」·「鹿鼎」⁵⁰⁾·「司母辛鼎」⁵¹⁾ 등의

46) '문화기억'은 현재 또는 어느 특정 시점에 실제 존재하거나 행해지지는 않지만 일종의 기억처럼 인류의 생활 근저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의 흔적을 의미한다. 문화기억은 인간의 다양한 儀式이나 행위 양식, 그리고 문헌·문자 등에 내포되어 있다(王霄冰 2007).

47) 鬲은 升鼎으로도 칭한다. 이 중의 '升'은 '獻'의 의미로서 犧牲을 헌상하는 것이다. 『儀禮·土冠禮』 중 '載合升'에 대해 鄭玄은 "煮于鑊曰亨, 在鼎曰升."이라 주석한 바 있다.

48) 鬲과 상대되는 일상생활용 정은 '飪鼎'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49) 「司母戊鼎」은 司母戊大方鼎이라 칭하기도 한다. 높이 133cm, 길이 1.1m, 폭 0.78m, 무게 875kg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정 중에서 최대의 것이다.

대형 정들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은 대형 정 의 사용 전통은 비록 西周 시기부터 이미 약화되기 시작하였지만, 대형 기물과 관련한 문화기억은 이미 형성되어 거정 조성의 심리적 토대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刑具로서 사용된 정 역시 정이 대형 기물이라는 문화기억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진 문헌 중에도 보이듯이 官吏를 처벌하거나⁵²⁾ 사람을 해치는⁵³⁾ 등, 형구로 쓰인 정이 사람 전신에 형벌을 가할 정도로 대형의 기물이었다. 형구로서의 정은 ‘刑鼎’이라 일컬어지는데⁵⁴⁾, 후대에는 조리기구인 정과 구별되는 형구를 나타낼 때에는 ‘鑊’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문자 및 단어 사용상의 구분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은 鑊과 더불어 형구의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는 ‘鼎鑊’이라는 이음절 단어가 조리기구라는 본연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구를 의미하였던 여러 문헌 기록, 그리고 다수의 관련 成語들을⁵⁵⁾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단어 역시 정이 여전히 대형 기물이라는 문화기억의 형성에 일조한 것이다.

셋째, 힘겨루기 도구로 사용되었던 정 의 존재 역시 정이 대형 기물이라는 문화 기억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선진 문헌을 비롯한 고대의 기록에서 정을 이용한 힘겨루기와 관련한 대목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⁵⁶⁾ 다만 조리기구, 제례 및

50) 이 두 정 모두 方鼎으로서 각각 60kg과 110kg이다.

51) 크기나 무게가 비슷한 두 개가 婦好墓에서 발견되었다. 무게가 각각 128kg, 107.5kg이다.

52) 예를 들어, “齊威王設大鼎於庭中 而數無鹽令…乃烹之(제나라 위왕은 큰 가마솥을 궁중에 걸어놓고 무염의 수령을 문책하였다. … 즉시 삶아 죽이고 말았다).”(『淮南子·汜論訓』)

53) 예를 들어, “太子與王后急爭之而不能得, 果以鼎生烹文摯 …… 夫文摯道人也, 入水不濡, 入火不焦, 故在鼎三日三夜, 顏色不變(태자와 왕후가 급히 정원하였으나 왕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여, 결국 솥에 산 채로 문지를 삶고 말았다 …… 무릇 문지는 도인이라 물에 들어가서도 젖지 않았고 불길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았으니, 고로 삼일 밤 삼일 낮을 솥에 있어도 안색조차 변하지 않았다).”(『論衡·道虛』) 또, “鄭人以詹子晉, 晉人將烹之 …… 乃就烹據鼎耳而疾號曰(정나라가 숙침을 진나라에 보내자, 진에서는 그를 삶아 죽이려고 하였다 …… 곧 끓는 솥으로 달려가 정 의 귀를 잡고서 소리쳤다).”(『國語·晉語四』)

54) 이 명칭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左傳』에서 보인다. 즉, “晉趙鞅荀寅帥師城汝濱, 遂賦晉國一鼓鐵, 以鑄刑鼎, 著范宣子所爲刑書焉(진나라의 조양과 순인이 군사를 통솔하여 汝水 가에 성을 쌓으면서, 진나라의 백성들에게 사백팔십 근의 쇠를 바치도록 하여 刑鼎을 주조하였는데, 여기에는 범선자가 지은 刑書를 기록하였다).”(『左傳·昭王二十九年』) 이에 근거할 때 형벌을 위한 전문 鼎도 있었던 것이다.

55) ‘刀鋸鼎鑊’·‘鼎鑊如飴’·‘身膏鼎鑊’ 등이 이 예에 해당한다.

의례용 기물, 그리고 형구 등과는 달리 힘겨루기를 위한 전용의 정과 관련한 실물 자료나 문헌자료는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정의 크기에 비례하는 무게를 가진 대형 정은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이 정을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가히 영웅에 상응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장사의 권위는 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화적 고사는 정의 크기에 대한 고대인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중국 역사 속의 정이 대형 기물이었다는 문화기억을 지속케 함에 있어 일정의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結語

본고에서는 商周시대의 전통 정이 근래에 巨鼎으로 변용된 것과 그 원인에 대해 문자학·문헌학·문화학적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거정의 의미와 출현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거정은 전통 정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이 전통의 정 문화를 계승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민생·민족·문화 등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전반에 걸친 관심과 중시를 거정을 통해 표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 및 번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 역시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정은 결국 정이라는 형상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사회 공익적 가치를 확대 표방하기 위한 것이며, 오랜 세월동안 전통 정에 대한

56) 예를 들어, “夫舉重鼎者 力少而不能勝也 及至其移徙之 不待其多力者(무릇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림에 있어 힘이 약하다면 들 수 없지만, 그것을 밀어서 움직이게 된다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淮南子·主術訓』) 또 “王與孟說舉鼎絕膾(왕이 맹열과 겨루어 정을 들다가 정강이뼈가 부러졌다).”(『史記·秦本紀』) 또 “籍長八尺餘, 力能扛鼎, 才氣過人, 雖吳中子弟皆已憚籍矣(항적은 키가 8척 여가 되고, 힘은 능히 정을 짊어질 수 있었으며, 재주와 기세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였으니, 비록 오중의 자제들조차도 모두 이미 항적을 두려워하였다).”(『史記·項羽本紀』)

인식에 의해 형성된 ‘정통성’·‘안정’·‘최고’·‘영원성’ 등의 함의가 거정의 거대한 규모만큼 원대하게 지향되고 또 실현되길 바라는 현대 중국의 집체적 사회심리 표출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류의 심적 동일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심리와 더불어 중국 문화 내에서 형성된 특유의 문화기억이 면면한 전승되어 현대의 거정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원 201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김종호 2010, 「중국어 해음현상의 고맥락적 특성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6輯,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 박석홍 2007, 「商代文字를 통한 三星堆 ‘縱目青銅人面像’ 考察」, 『中國學報』 第55輯, 서울, 韓國中國學會.
- 박석홍 2009, 「보조기호를 활용한 漢字 지도 방안 小考—필형 및 필획조합 지도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45輯, 서울, 韓國中語中文學會.
- 박석홍 2015a, 「意味資質 기반 象形字 形體素 分析 小考」, 『中國文學研究』 第5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 박석홍 2015b, 「甲骨文 簡化字素 ‘ㄷ(mǐn)’ 小考」, 『中國文學研究』 第60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 이종호 2003, 『과학으로 파헤친 세기의 거짓말』, 서울, 새로운 사람들.
- 종교사전 편찬위원회 1998,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 曲彥斌 1996, 『中國民俗語言學』,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馬承源 1988, 『中國青銅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徐學書 1989, 「關於三星堆出土青銅人面像之探討」, 『四川文物』 廣漢三星堆遺址研究專輯, 成都, 四川省文物局.
- 王霄冰 2007, 「文化記憶角度下的文字與儀式」, 『文字、儀式與文化記憶』, 北京, 民族出版社.
- 李珍華·周長楫 1993,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 張懋容·曹璋 2002, 『中國青銅器真偽鑑別』,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 張長壽·陳公柔·王世民 1999,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 曹定雲 1993, 『殷墟婦好墓銘文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巴家云 1991, 「三星堆遺址青銅“縱目”人面象研究—兼和范小平同志商榷」, 『四川文物』
1991年 2期, 成都, 四川省文物局.

M. S. Gabarino 1994, "Sociocultural Theory in Anthropology: A Short History", 한경
우·임봉길 譯 『문화인류학의 역사』, 서울, 일조각.

〈Abstract〉

A Research on the Modern Modification and Its Factor of Chinese Ancient
'Ding(鼎)':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Huge Ding(巨鼎)

Park Seok-hong

Ding(鼎) is a famous traditional and historical caldron in China. It is originated from earthenware pottery which was used cooking utensils by prehistoric man in the prehistoric age of China. By the Shang(商) and the Zhou(周) dynasty, Ding was frequently used as a ancestral rites instrument. It had been accepted as the symbol of king and the royal families of ancient China.

Recently there are many huge Ding(巨鼎) in various provinces of China. Some of these have huge size, for example Zhonghua Baifu Dading(中华百福大鼎), Zhonghua Wanshou Dading(中华万寿大鼎), Shishiqiushi Dading(实事求是宝鼎), Jiulong Baoding(九龙宝鼎), Minzhu Tuanjie Baoding(民族团结宝鼎), etc. The largest one is over 10 meters long and weight of 56 tons. This paper focused on analysis the meaning of these Chinese huge Ding, and tried to search the root cause of appearance of Chinese huge Ding in modern China.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Chinese huge Ding have the means of legitimacy, stability, the best, eternity to express social and public message of current Chinese society by various graphonomical and phonetical symbolic methods. And the fundamental reason of making huge Ding is based on the psychic unity of mankind('Elementargedanken') and cultural memory about the

big tripod caldron of Ancient Chinese including Ding of the Shang and the Zhou dynasty.

Key Words: Ding(鼎), the Huge Ding(巨鼎), Psychic unity of mankind(人類心的同一性), Cultural memory(文化記憶), Chinese Graphonomy(中國文字學)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8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11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